

이마트, 16일까지 계란 전 품목 최대 30% 할인



이마트가 16일까지 신세계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계란 전 품목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는 '계란 뮤지엄'(사진)을 진행한다. 일반란, 등급란, 동물복지란, 브랜드란, 가공란, 희귀란 등 총 6개 테마 27개 상품을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 또 평소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청란과 오픈계란 등 희귀란도 선보여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김정복 이마트 바이어는 "가정식 필수 재료인 계란이 금(金)란이 된 상황에서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했다.

오리온, 타블릿 캔디 '마켓오 민티' 출시



오리온이 타블릿 캔디 '마켓오 민티'(사진)를 내놓았다. 천연 멘톨과 복숭아 과즙을 함유해 청량감과 맛을 살렸다. 상쾌함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입자를 강하게 압축하는 기술을 적용했다.

입 안에서 쉽게 부스러지지 않고 매끄럽고 부드럽게 남는다. 강력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페퍼민트'와 향긋 상큼한 복숭아 맛이 매력적인 '피치민트' 등 2종으로 구성했다.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입 안이 답답하거나, 운전 및 사무실 근무 중 기분전환용으로 제격이다.

강원랜드, 강원·경북 산불 피해주민에 4억 전달

강원랜드는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 삼척, 강릉, 동해시와 경북 울진군의 지원을 위해 성금 4억원을 기부한다. 성금은 각 시·군 지자체에 전달할 예정이며 이재민 긴급 주거시설, 생계비, 구호 물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강원랜드 임직원들과 노동조합도 이재민들을 위한 지원활동에 나섰다. 강원랜드는 2019년 강원 고성 산불 피해 때도 성금 5억원을 전달하고 사회봉사단을 파견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쳤다.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허리디스크 환자, 척추내시경 수술 시 경험 풍부한 신경외과 전문의 통해 진행

허리디스크는 척추 뼈 사이 충격을 흡수하는 디스크(추간판)가 탈출한 증상을 말한다. 정식 병명은 요추추간판탈출증이다. 허리 통증과 다리가 저린 증상이 나타난다. 눕거나 편한 자세를 하면 통증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통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반면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 주변 구조물들이 비대해지면서 척추관이 좁아지고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이다. 허리통증과 다리의 당김·저림, 보행 시 통증 등이 허리디스크와 유사하다. 하지만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 척추관이 일시적으로 넓어지면서 통증이 완화된다는 특징이 있다.

허리디스크나 척추관협착증은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하게 치료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신경외과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증상이 경미하면 약물, 주사, 물리 등 비수술적 치료를 적용할 수 있다. 일정기간 보존치료를 해도 개선이 안 되면 수술치료를 적용해야 한다.

대표적인 치료가 척추내시경 수술이다. 7mm 정도의 작은 상처를 내고 고해상도 내시경을 삽입해 두꺼워진 뼈와 인대, 디스크만을 다이아몬드 미세드릴과 레이저 등으로 제거하고 좁아진 척추관을 넓히는 레이저 수술법이다. 환자에 따라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미세현미경수술을 함께 하기도 한다. 척추관협착증과 척추불안정성이 있으면 최소절개 척추유합술 등이 필요할 수 있다. 난이도가 높은 수술임으로 임상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신경외과 전문의가 수술을 진행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높은 수술 만족도를 기대할 수 있다.



잠실 미래병원 김형석 원장

롯데월드, 오늘부터 '월드 스쿨 페스티벌' 운영



롯데월드 어드벤처 만남의 광장에 학교 밴드부 콘셉트로 조성한 포토존, 3D 디지털 맵핑을 통해 핑크빛 벚꽃이 만개한 매직캐슬, 베네치아의 가면 축제를 재현한 '환타지 마스크 퍼레이드'(왼쪽부터), 사진제공 | 롯데월드

'인생샷 명당' 환상학교로 모여라!

그릴싸진관, 학교 콘셉트로 리뉴얼 핑크빛 벚꽃성으로 변신 매직캐슬 베네치아 가면축제 퍼레이드까지 다양한 포토존·공연 즐길 수 있어 교복 입으면 현장예매 할인도 제공

서울 잠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즐거운 환상 학교를 테마로 한 시즌 축제 '월드 스쿨 페스티벌'을 11일부터 6월 6일까지 운영한다.

이색적인 포토존부터 화려한 공연까지 볼거리와 놀거리를 다양하게 구성했다. 우선 롯데월드 방문시 대세 복장이 된 교복을 준비해야 한다.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면 어드벤처 정문 부근 '감성 교복'과 파크 지하 1층 분장실 '픽시매직'에서 빌릴 수 있다. 나만의 스타일을 꾸미는 데 유용한 소품인 가방, 안경 등도 함께 대여한다.

교복 차림으로 어드벤처를 즐기는 포인트는 바로 '인생샷'이다. 실내 어드벤처에 들어서면 로티와 밴드부 스테이지로 변신한 '만남의 광장' 포토존이 나온다. 화려한 조명과 기타, 드럼, 스피커 등 각종 악기들이 있다. 매일 오후 1시부터 롯데월드의 캐릭터들이 깜짝 등장하는 포토타임도 있다. 어드벤처 4층 '그릴싸진관'은 봄을 맞아 리뉴얼했다. 학교 콘셉트에 맞춰 핑크, 민트 등의 봄 컬러로 디자인된 체육관, 과학실, 밴드부실 등 새로운 부스를 만나볼 수 있다.

야외 매직아일랜드의 대표적인 포토



'인생샷 명당'으로 꼽히는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매직캐슬을 배경으로 예쁜 교복과 머리띠를 하고 사진을 찍고 있는 고객들. 매직캐슬은 해가 지면 화려한 조명과 3D 디지털 맵핑 영상이 더해져 낮과는 다른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사진제공 | 롯데월드

스팟은 '매직캐슬'이다. 이곳은 해가 지면 메인브릿지에 반짝이는 조명이 켜지고, 41.3m 높이의 매직캐슬에는 3D 맵핑 영상이 등장한다. 지난 겨울부터 사진 명소 입소문이 난 곳인데, 봄을 맞아 핑크빛 벚꽃이 만개하는 성으로 변신했다. 오후 8시 30분부터 진행되는 미디어 맵핑쇼 '매직캐슬 라이프'도 봄 낭만을 더해줄 다양한 음악을 추가했다.

● 맨스 뮤지컬 '스쿨업2' 등 다양한 볼거리 롯데월드 축제에서는 봄과 학교 콘셉

트에 맞는 다양한 공연도 빼놓을 수 없다. 스테이지 공연 '스쿨업2'는 힙합과 재즈를 넘나드는 학교 콘셉트의 댄스 뮤지컬이다. 춤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학생들의 성장 스토리를 담았다. 교복 차림의 혼남혼녀 연기자들의 파워 넘치는 댄스를 감상할 수 있다. 이번엔 배역을 늘리고 스토리를 강화했다. 26일부터 토, 일요일과 공휴일 오후 5시 가든 스테이지에서 진행된다.

매일 오후 2시에는 동화 속 주인공들이 이탈리아 베네치아 가면축제를 재현

하는 '환타지 마스크 퍼레이드'가 열린다. 야간에는 화려한 조명과 멀티미디어 쇼가 어우러지는 '벙츠 드림 나이트 퍼레이드'가 오후 8시에 시작된다.

이밖에 롯데월드 캐릭터들이 출연하는 '캐릭터 환타지야'(오후 3시30분), 로티와 친구들이 사이버 대마왕으로부터 사촌캣을 구하는 스테이지 공연 '로티의 모험2'(오후 6시30분) 등의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한편,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3월 한 달간 알뜰한 나들이를 지원하는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교복을 입으면 현장 키오스크 예매시 최대 45% 할인이 가능하다. '픽시매직' 교복 기본세트와 종합이용권이 포함된 패키지도 있다. 삼성카드 PLCC인 롯데월드카드도 결제 시에는 본인과 동반 1인까지 약 66% 할인가격으로 입장이 가능하다.

롯데월드카드가 없더라도 삼성카드 회원이면 2만9500원에 종합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통신사 SKT 고객은 40%, KT, LG U+ 이용고객은 최대 50% 제휴할인을 제공한다.

현재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코로나 상황에도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 소독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입장 후에는 식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방송 등을 통해 수시로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고 있다. 영업 전과 종료 후에 롯데월드 단지 전체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등은 항균/항바이러스 특수 코팅 처리 및 영업 전·후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두산중공업, 21년 만에 '두산에너지빌리티'로 사명 변경

"회사의 미래 지향점 제시하는 사명" 수소부터 3D프린팅 등 적극 육성



오는 2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 예정인 신규 사명 '두산에너지빌리티'의 C.I.

두산중공업이 '두산에너지빌리티'로 사명을 변경한다. 두산중공업은 8일 이사회를 열고 사명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2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명을 '두산에너지빌리티'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사명 변경은 2001년 한국중공업에서 두산중

공업으로 바뀐 지 21년 만이다. 두산중공업은 사명 변경을 계기로 올해를 재도약 원년으로 삼아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회사명인 '두산에너지빌리티'(D

oosan Enerbility)에서 '에너지빌리티'(Enerbility)는 'Energy'(에너지)와 'Sustainability'(지속가능성)를 결합한 조합어이다. 이들의 결합을 가능하게 한다는 'Enable'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현재 사명은 회사의 현재 모습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담아내기에 충분하지 않은 면이 있었다"면서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부합하고 회사의 미래 지향점을 제시하는

사명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가스터빈, 수소, 해상풍력, SMR(소형모듈원전)을 성장사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3D 프린팅, 디지털, 폐자원 에너지화 등 신사업도 적극 발굴하는 등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회사 측은 "전문가 그룹의 제안과 내부 검토를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를 포괄할 수 있는 '확장 가능성', 언어적 표현에 대한 '글로벌 적합성', 다른 기업명과 비교한 '차별성' 등을 감안해 '두산에너지빌리티'를 새로운 사명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원성범 기자 sereno@donga.com

LGU+, '실사 우주체험' VR 콘텐츠 신규 공개

국제우주정거장 외부 촬영해 기대

LG유플러스는 세계 5G 콘텐츠 연합체 'XR 얼라이언스'의 신규 가상현실(VR) 콘텐츠 '우주체험: 국제우주정거장 경험'에 피소드3를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제우주정거장 경험은 XR얼라이언스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실제 우주에서 촬영한

총 4부작 VR콘텐츠 시리즈다. 국제우주정거장 외부의 실제 우주공간 모습을 실감나게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규 콘텐츠는 지구에서 같이 훈련을 받은 비행사들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다시 모이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세계 최초 3D 360도 VR카메라로 국제우주정거장 외부를 촬영해 기대감을 모았다.



LGU+가 신규 공개한 세계 최초의 실사 우주 VR 콘텐츠. 사진제공 | LGU+

이를 위해 XR얼라이언스 참여사 '펠릭스 엔 폴 스튜디오'는 영하 156도부터 영상 121도까지 초저·고온을 견디고 플래터 효과를 최소화한 특수 제작 렌즈를 탑재한 카메라를 직접 제작하고 미국 타임스튜디오, ISS 미국국립연구소, 미국항공우주국, 캐나다 우주국 등과 협력해 '우주유영'을 촬영했다. 'U+DIVE' 앱을 통해 이용하는 통신사와 관계없이 무료로 볼 수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